

시론



주홍
자유예술가

“엄마, 택배가 왔어요!”
“와, 추석 선물이구나.”
“택배가 도착했다. 골박스 포장이다. 골박스를 뜯었다. 하얀 스티로폼 박스가 나왔다. 스티로폼 박스를 뜯었다. 다시 스티로폼 박스가 나왔다. 그 박스를 열었다. 랩이 씌워진 흥어가 있다. 택배가 도착했다. 손잡이가 있는 부직포 네모가방이다. 부직포가방에서 짝짝이를 뜯고 박스를 꺼냈다. 고급박스를 열어보니 하얀 스티로폼 박스가 나왔다. 스티로폼 박스를 열었다. 굴비가 있다. 택배가 도착했다. 또 택배가 도착했다...”

추석이 다가오니 선물은 택배로 도착한다. 택배가 도착할 때마다 비싼 물건일수록 포장에 포장에 포장이 나오고 또 나온다. 뜯고 분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이 쓰레기들은 어디로 갈까?’ 버려지는 것

쓰레기반가사유상

들이 말을 걸어오고 탐처럼 쌓이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가면 쓰레기 탐들이 쌓여 있다. 사각 스티로폼 박스로 만들어진 하얀 탐.
우리 집에서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다’라는 조각가 고근호 작가다. 작업실에서 푹푹푹푹 망치 소리가 들렸다. 반가사유상이 만들어졌다. 반가사유상은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걸치고 약간 고개 숙인 얼굴의 뺨에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대어 깊은 명상에 잠긴 모습이다. 석가모니가 태자였을 때 인생의 덧없음을 사유하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쓰레기로 만든 반가사유상이라니! 루브르박물관에는 모나리자의 미소가 있고,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금동반가사유상의 미소가 있다. 그런데 2024년, 쓰레기로 만든 반가사유상이 탄생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버린 것들로 만들어진 반가사유상은 우아한 미소로 반가부좌를 하고 미소를 머금고 묻는다. ‘무엇을 버리는가? 쓰레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 이 그물 같은 욕망의 구조를 보라!’

국보 금동반가사유상이 아니라 ‘쓰레기반가사유상’이다.
올 여름 폭염을 온몸으로 겪으며 이런 더위는 처음이라고 한다. 기후 학자들은 앞으로 이보다 더 뜨거운 여름만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다. 여름에 낯선 날씨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흥성담작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통찰한 전국의 예술가 50여명의 작품들이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전시 중이다.
예로부터 푸른 호수처럼 맑은 생태계를 품은 바다로, 목포 앞바다를 ‘청호(靑湖)’라고 하였으니, 목포 바다에서부터 세상에 치유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는 의미로 ‘청호바람’전이다.
이 전시는 9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1층부터 4층까지 건물 전체에서 독립영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회화, 등 현대미술 축제의 장으로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을 미술관으로 변모시켰다.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를 타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터미널에서 열리는 현대미술전시, ‘청호바람’ 미술축제는 우리가 버린 것들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지를 기발한 현대미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사유할 수 있다.

社說

광주시 광천권역 교통대책 후속 절차 차질 안된다

광주시가 고심 끝에 확정된 광천권역 교통대책의 핵심은 도시철도 ‘상무광천선’과 ‘BRT(간선급행버스)’ 도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긍정 검토를 약속해 급물살을 탄 것으로 국토교통부 승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광천선은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 가야 오도랜드, 종합스포츠터미널을 거쳐 임동 방직공장터, 신안동을 지나 광주역 후문으로 이어지는 7.78km를 운행한다. 급행버스는 백운광장-광천사거리-광주회맹병원 10.3km 구간이다. 동서를 연결하는 도시철도에도 반해 남북을 잇는다.
사업비는 광천선 6천925억원(국비 60%, 시비 40%), 급행버스 526억원 규모이며, 시비 부담은 각각 2천770억원, 32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광천 상부를 가로지르는 ‘에코브릿지’와 ‘그린로드’는 180억원으로 책정됐다. 광주시는 모든 재원을 방직공장터 개발과 광천터미널 복합

화의 공공기여금 등으로 활용한다. 별도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꼼꼼하게 세부 계획을 다듬어야 한다.
교통과 유통, 주거 기능을 아우르는 콤팩트시티 광천권역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도시’ 시범모델이다. 단지 도시철도는 예상대로면 2032년 완공돼 복합쇼핑몰 개점 이후로 혼잡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실제로 더현대광주는 2027년 말, 신세계백화점 확장은 2028년이 목표다. BRT가 2027년 하반기 개통하더라도 지금 하루 1만대 이상이 통행하는 상황에서 2배가 넘는 차량이 물리는 심한 체증이 우려되는 만큼 최대한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도시철도 1·2호선과 맞물려 상무광천선은 분담률을 높이고 주요 지점별 이동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광천권역은 교통정책의 대전환으로서 주목받는다. 광주의 도전이다. 조속한 행정 절차, 국비 확보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특전사회 공동선언 폐기 5·18단체 혁신의 계기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회가 ‘2·19 대국민 선언’을 공식 폐기했다. 이들 단체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계엄군에게 면죄부를 줬고, 역사를 왜곡했다. 광주 시민을 배반했다”고 어리석음을 사과하며 분골쇄신의 의지를 다졌다. 기자회견 전 유족회를 포함해 3공법단체 회원들은 사회의 의미를 담아 오월 영령에 참배했고 시민들에게 큰절을 올렸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을 내 “오월 정신이 시대 정신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상자·공로자회는 지난해 2월19일 각계의 반대에도 특전사동지회를 초청해 용서와 화합을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을 강행, 거센 반발을 샀다. 올바른 진상 규명이 이뤄진 후에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무시했고, 이를 비판한 오월이며니 집 관장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또 이로 말미암아 내부 분열 사태로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 차원의 종합보고서가 나왔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수구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한다. 5·18기념재단이 민주화운동의 거대한 투쟁 지형과 피해 실태를 알려주고자 출간한 “광주 박” 전국의 5·18 진상”이라는 책자가 조명받는 것이다. 헌법 수록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고, 왜곡·편향에 대응하는 기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980년 5월 광주는 전국적 연대로 전두환 신군부 내란 세력들에 맞서 싸웠다. 이후로 40년을 훌쩍 넘겼으나 갈 길이 멀다. 두 단체도 발포 명령자 등 진상 규명이 요원한 상황에서 특전사회의 반대도 시기상조였다는 지적을 뒤늦게 받아 들었다. 1년6개월 동안의 갈등이 일단 수습되는 분위기가. 진심어린 사과라고 믿는다. 지역사회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앞으로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처럼 더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기고



박미정
광주시의원

대한민국 축제의 자부심, 광주 충장축제

충장축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다. 바로 ‘추억’이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에 떠밀려 보행해야 했던 그 시절 충장로를 추억하게 된다. 각 분야 최고들이 모여들었던 그 거리, 충장로가 아련하게 떠오른다. 그 때문에 놀아도 그 거리에 가서 놀아야 한다는 나름의 공식이 있었다. 멋을 아는 사람이 모여들었던 충장로는 광주의 ‘명동’이었다. 충장축제는 그 거리의 추억을 되새기는 축제로 시작했다. 추억의 충장축제는 전 국민에게 ‘7080’의 붐을 일으킨 축제이기도 하다. 충장축제가 가면 회복을 입고 디스코 춤을 추었던 아름다운 지난 날로 되돌아가는 행복에 빠지게 한다.
충장축제는 ‘참여’이기도 한다. 어느 해였던가, 광주 곳곳에 충장축제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마다 다른 걸 보니 축제 주최 측이 아니라, 그 거리 인근에서 생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인들이 만들어 내건 현수막이었다. 축제는 물론 자신의 영업이나 활동조직

도 알리는 축제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았을 때, 충장축제는 대단한 축제로 성장해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이렇게 꼼꼼하고 자연스럽게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축제라면 대박성공이 당연한 귀결이다. 광주 구석구석 동민 저마다의 창의성을 발휘해 만든 페어이드 소품과 장기, 그리고 상징으로 표현된 메시지가 금남로를 행진할 때 ‘시민 참여’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었다. 축제의 거리에서 참여로 하나 되는 향연이 펼쳐져 왔다.
충장축제는 ‘연대’이다. 해마다 열리는 충장축제는 이제 스무살 성년을 갓 넘겼다. 충장로에서 금남로를 잇고,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에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전 국민을 잇고 있다. 이제 세계인의 마음을 잇는 꿈을 꾸고 있다. 충장축제는 버스커스월드컵을 탄생시켜 세계 각국의 참여자들을 충장축제의 매력에 물들게 만들었다. 세대를 잇고 남녀를 잇는 축제의 무대, 각종 문화 간 차이를 넘어 재창조된 문화를 선보이는 축제의 무대가 되길 소망한다. ‘충장로에서 만납시다’며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했던 경험을 살려 올해는 서울, 부산의 지인을 초대하고 싶다.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인·기업인, 다문화이주민들의 분국 가족들, 혹은 한국문화의 매력을 찾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충장축제와 이어지는 날이 열릴 것이다.

충장축제는 ‘광주’이다. 오후 3시쯤 사람 없는 충장로 거리를 본다. 침체된 경제의 여파를 실감하게 하는 가슴 아픈 일이다. 광주 경제도 이와 같다. 자영업 비중은 높는데 코로나19 이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민생경제 현상이 광주 곳곳에 펼쳐지고 있다. 축제는 이런 광주를 어루만지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작은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충장축제를 통해 충장로·금남로가 회복되고 광주가 빛나게 되는 물꼬를 틀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돋움한 충장축제가 다시 세계인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충장축제는 ‘기원’이다. 축제는 시문, 주민의 소원들을 한데 모아 함께 하늘에 기원하며 제사를 올리는 행사의 일환이기도 한다. 충장축제는 상인, 동구민, 광주시민의 소망과 염원들이 한데 모인 소원풀이의 장일 수 있다. 지역의 리더들이 시민의 염원을 풀어내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가는 마당이 될 것이다. 구성원 모두가 각기 다른 희망의 차이를 담고 소망하는 바를 모두 성공하길 기도하는 축제가 되길 ‘기원’한다. 광주시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기쁨을 배가시키는 환희가 한데 어우러지게 될 것이다. 그 충장축제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오는 10월 충장축제로 놀러오세요. 추억이 있고 참여, 연대, 기원 등이 반갑게 나와 우리를 안아줄 것입니다.”

독자투고

이번 추석 연휴에는 많은 귀성객들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고향으로 여행명소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즐거운 고향방문길 반드시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전 철저히 해 사고 발생하지 않아 화목한 전지, 가족들 간의 시간을 보내길 당부한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한 가족들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 혹시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에는 사망률을 3배 낮출 수 있다

추석 연휴 귀성길 안전운전은 필수
는 연구보고서가 있는 만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또 차량 출발전에는 반드시 타이어 공기압, 냉각수, 엔진오일, 점화플러그, 번속기오일, 라이닝, 번속기 작동, 전조등·방향지시등 작동 유무 등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운전중 전화사용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휴대전화 사용은 금물이다.
그리고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전해야

하며 운전중 졸음이 오면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운전 쉼터 등 안전곳에 정차하고 맨손체조 등을 하고 건과류 등을 섭취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밖에 음주술, 급제동, 급차선 변경, 과속 금지해야 하고 갑갑약 등 약물을 복용 후 운전 금지 등 반드시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추석 연휴 귀향길 대형사고 발생하지 않아 화목함이 가득한 고향방문이 되길 기원한다. <신병정·여수경찰서 대경도치안센터>

대명절 한가위 ‘스미싱 문자’ 주의보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명절 전 스미싱(문자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석 잘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주분하신 물품 곧 배달됩니다. 주소 재확인 요청 바랍니다’라는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 안에 인터넷 주소(URL)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면 누구나 쉽게 클릭하기 쉽다. 그러나 링크를 함부로 눌렀다가 돈을 잃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따라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러한 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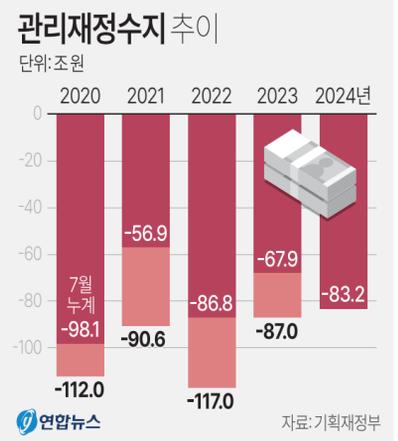
경찰청에서는 각종 문자에 포함된 출처 불명확한 URL이나 전화번호를 누르지 말 것이며,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도 함부로 설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 원격조정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건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악성 앱 설치 등으로 인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명절 연휴 중에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즉시 112신고를 접수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재복·광영경찰서경무과)

그래픽 뉴스

1-7월 나라살림 적자 83조원...작년보다 15조 늘어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 감소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357조2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9천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8.3%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천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5조5천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세외수입은 18조4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1조6천억원 늘어난 129조9천억원이었다. 총지출은 400조5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2.4%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천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83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7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3조4천억원 늘어난 1천130조3천억원이었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8천억원,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27조7천억원이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고 실행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 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